



‘부적합 농산물’ 사전 차단, 설자리 없어

안전사용기준 지키면 잔류량 없거나 기준 밑돌아, 안전장치도 든든

■ 홍보부

■ 잔류농약과 사람의 건강

○ 작물잔류 실태와 리스크

소비자가 농약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안은 「농작물중에 농약이 잔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섭취할 경우 언젠가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일반 소비자의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배경으로 농산물 및 식품의 농약 잔류에 대해 과학적으로 엄격하게 조사 확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 문제가 제기되어 마스크임이나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앞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약의 안전성 평가 체계 및 잔류허용기준과 비교하면서 실제의 농약 사용현장은 물론 농산물중 농약 잔류실태와 사람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검증해 보자.

〈표 1〉은 1993년 일본농약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실증포장에서의 적정 방제력에 의한 농작물중 농약잔류 조사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이 표에는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농약을 사용한 경우의 양파, 감자, 사과, 오이, 양배추, 감귤 및 수박의 농약 잔류량이 표시되어 있다. 전 작물, 전 농약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검출되었을 경우에도 잔류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치였다. 이 시험성적은 실제 포장에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한 농작물중 농약 잔류량이 대폭 하회하고 있다는 것과 농작물중의 잔류농약으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는 매년 채소류와 과일류, 곡류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4년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보면 총 6만5백67건의 조사건수 중 전체 부적합건수는 7백70여건으로 부적합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농약잔류는 매우 낮은

표 1. 안전사용 기준을 지킨 실증포장에서의 작물중 잔류농약

작 물	사 용 약 제	분 석 성 분	분석치(ppm)	잔류허용기준(ppm)
양 파	펜디유제 토쿠치온유제	펜디메타린	불검출	} 0.2 0.1
		푸로치오포스	불검출	
		푸로치오포스오크인체	불검출	
감 자	다코닐수화제	크로로타로닐	불검출	1.0
사 과	더스반수화제 베프란 액제 수푸라사이드수화제	크로르피리포스	불검출	0.5
		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불검출	0.2
		메치다치온	불검출	0.2
오 이	유파렌수화제	디크로푸루아니드	0.01 0.004	15.0
배 추	하쿠샷수화제 토쿠치온수화제 호스크린수화제 파단수화제	펜발러레이트	0.002	0.5
		푸로치오포스	0.006	0.1
		인기사치온	불검출	0.1
		칼탐	불검출	2.0
감 굴	닛쓰린수화제 디메토에이트수화제 파노콘유제	헥시치아족스	불검출	2.0
		디메토에이트	불검출	1.0
		훼노치오키브	불검출	0.5
수 박	로브랄수화제	이프로디온	불검출	} 5.0
		이프로디온대사물	불검출	
		트리후미졸	불검출	
	트리후미졸수화제	트리후미졸대사물	0.03	} 0.1
		스미렉스수화제	프로시미돈	
	디디비피유제	디크로포스	불검출	0.1
	수푸라사이드수화제	메치다치온	불검출	0.2
다코닐(수화제)	크로로타로닐	불검출	1.0	

수준이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도 즉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 폐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주는 물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52%가 막연히 국내 농산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부적합 검출비율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2004년도 우리나라의 잔류농약검사결과가 선진외국의 잔류농약 부적합비율보다 오히려 낮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경우 잔류농약으로 인한 부적합 비율이 늘어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 부적합 비율 농산물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농협,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약제조회사들이 소면적 재배 작물에 대한 적용확대 시험과 농약안전사용 지도 계몽을 꾸준히 실시하여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